

김경수 경남도지사,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 참석

- 항공산업 발전 위해 시·도 관용헬기로 ‘수리온’ 구매 제안

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(회장 권영진 대구시장) 제45차 총회에 참석했다.

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체계 제도개선 건의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·도지사 공동 입장문 발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해 왔다.

이번 총회에서는 시·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,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도 점검했다. 참석한 시·도지사들은, 앞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확대기로 하고,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.

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 시·도에 관용헬기 도입 또는 노후기 교체 시 국산헬기 ‘수리온’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. 특히 소방헬기 입찰 시 자격조건을 외국산헬기로 정해놓기도 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, 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‘수리온’이 최소한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”고 요청했다.

또 예전 마린온 사고는 부품자체의 불량 때문이었고 해당 회사의 과실이 원인이었음을 설명하며, 수리온의 안전성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.

이에 시도지사협의회장(권영진 대구시장)은 “메이드인 코리아 수리온 헬기의 안전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홍보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이채인 주무관(055-211-24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